

타자의 발견? 타자의 발명?

- 비숍과 크리스테바의 여행기 -

김 종 갑*

1. 동양 타자와 여행기
2. 비숍이 발견한 조선인 타자
3. 크리스테바가 발견한 중국인 타자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여행기에 나타난 토착민 타자의 재현과 담론적 위상을 살펴보는 데 있다. 16세기 발견의 시대 이후로 유럽의 탐험가나 여행가들은 당시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공간을 찾아서 지구의 방방곡곡을 탐험하고 여행하였다. 그들의 발길이 닿기 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대륙이나 섬의 원주민이 토착민이다. 당시 여행기의 독자들은 그와 같이 ‘발견된’ 토착민 타자의 모습과 문화를 지켜보면서 당시 유럽의 문명화되고 개화된 정도를 판단할 수 있었다. 토착민은 유럽인이 자신의 얼굴을 비쳐주는 거울로서 유럽인의 자기정체성에 필수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20세기 세계화와 지구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토착민들은 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것은 식민주의에서 탈식민주의로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기의 원래 목적이었던 원주민의 발견과 소개가 불필요해진 세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계화의 시대에도 여행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발견과 발명의 구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더 이상 발견할 토착민이 사라진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행기 작가들은 이제 토착민을 상상하고 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자벨라 버드 비숍과 크리스테바의 여행기를 대조 분석하면서 필자는 이 점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타자, 타자성, 토착민, 여행기, 재현, 근대, 전근대, 탈식민주의, 오인, 유럽, 중국, 한국

1. 동양 타자와 여행기

『반대자의 초상*Figures of Dissent*』에서 영국의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은 현대의 학계는 타자성과 열애에 빠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편애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라는 것이다(10-14). 모더니즘의 정서가 동일성과 자율성이었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적 정조는 차이와 타자성이다. 1960년대 이후, 유럽의 로고스 중심주의적 전통에 대항했던 레비나스(Lévinas)나 푸코(Michel Foucault), 데리다(Jacques Derrida), 토도로프(Tzvetan Todorov),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바르트(Roland Barthes)와 같은 지식인들은 타자성으로부터 지적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발견하였다. 타자는 유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힘들게 건너야 하는 미지의 공간, 푸코적 “이질 공간”(heterotopia)이었다. 이와 같이 타자성에 대한 관심이 비등하면서 과거에 학문적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미개인이거나 야만인, 광인, 죄인, 괴물 등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그라마톨로지*De la Grammatologie*』에서 데리다는 미래 철학의 가능성을 “괴물성”(monstruosité)(5)에서 찾았으며, 깡길렘(Georges Canguilhem)과 푸코는 각각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Le Normal et le pathologique*』와 『광기의 역사*Histoire de la Folie*』

에서 병적인 것의 이름으로 정상인들을 단죄하였다.

그러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서 사이드(Edward Said)가 강변하였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열풍이 불어오기 훨씬 이전부터 유럽은 타자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히 15세기 이후로 낯선 세계에 대한 여행기가 출간되면서 비서양 타자에 대한 유럽인의 호기심에 불이 붙기 시작하였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동방견문록*Travels in the Land of Kubilai Khan*』이나 파크(Mungo Park)의 『아프리카 오지로의 여행*Travels in the Interior Districts of Africa*』와 같은 여행기는 당시 유럽인들의 인구에 회자되는 베스트셀러였으며, 스탠리(Henry Stanley)의 『검은 아프리카*In Darkness of Africa*』는 출판되기가 무섭게 5개 언어로 번역되고 삼시간에 150,000부가 동이 났다(Carr 71). 여행기를 읽으면서 유럽인들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유럽 타자의 모습과 문화를 손금을 읽듯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도저히 닿을 수 없이 먼 거리에 있던 타자가 유럽인의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타자가 단지 유럽인의 호기심만을 채워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의 토착민은 유럽의 자기 이해와 정체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였다. 유럽 바깥의 타자는, 그때까지 이해를 달리하면서 흠어져있던 유럽이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심어주었다(Hall 276-280, 289-291). 『제국주의적 시선*Imperial Eyes*』의 프렛(Mary Pratt)에 의하면 여행기를 통해서 한편으로 유럽, 다른 한편으로 “나머지 세계”(Pratt, 5)라는 이분법이 생성되었다. 비유럽 타자를 제3세계화하고 비문명화시킴으로써 패권적 문명국가로서 유럽의 정체성이 다져진 것이다. 데리다는 주체(subject)는 타자를 종속시킴으로서(subjection) 얻어지는 결과라고 말하였다(Derrida, “Force of Law” 22).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유명한 비유를 빌리면 비유럽 원주민들은 유럽인을 실제보다 더욱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확대경”(35)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와 같이 확대경으로 기능하던 타자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푸코나 데리다, 토도로프, 크리스테바, 바르뜨에게 타자는 확대경이 아니라 축소경이 되었다.

과거에 타자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거인으로 보았던 유럽인이 이제는 난장이가 된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다. 근대가 탈근대로, 식민주의가 탈식민주의로 바뀌는 와중에 오만의 담론이 “검손”(Pratt 2)의 담론이 되었다. 데리다의 경우에 괴물은 주체가 식민화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해체되어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게 하는 충격적 만남이다.

유럽인이 비유럽 타자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의 변화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담론의 현상이 여행기이다. 그것은 고국을 떠나 낯선 타지를 여행하는 서술자가 토착민 타자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대끼면서 겪은 경험의 기록이다. 다큐사진처럼 여행기의 생명은 현장성에 있다. 고대의 미노타우로스(Minotaur)나 실레노스(Silenus)와 같은 구전이나 설화와 달리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다”(Hulme and Young 4)는 사실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마르크 폴로나 파크의 여행기가 당시의 독자를 사로잡았던 주된 이유는 그것이 유럽인들에게 생소했던 중국과 아프리카의 토착민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라는 데 있었다. 여행기를 위해 미지의 토착민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가 지구촌이 된 시점에서 레이 초우(Rey Chow)는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Writing Diaspora: Tactics of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에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토착민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49) 토착민(aboriginal, 혹은 indigenous people)이라는 개념은, 1667년에 새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대발견의 시대에 유럽의 탐험가나 모험가들이 발견한 전인미답의 땅, 아직 유럽인들의 정착이 시작되기 이전의 땅의 주민들을 말한다(Ashcroft 4-5). 그러나 지구의 끝 극지까지도 탐사된 현대에는 지도에 좌표가 표기되지 않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혹성의 생명체라면 몰라도 지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토착민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디스커버리>와 같은 TV 채널을 돌리면 우리는 안방에서 아마존의 원주민을 볼 수 있으며,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지역도 비행기로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기든스(Anthony Giddens)와 바우만(Zygmunt Bauman)이 적절하게 설명하였듯이 근대화는 공간과 시간의 단축, 더 나아가 소멸(기든스 67, 67-75; 바우만 17-21)을 수반했다. 이와

같이 축소된 혹은 세계화된 지형에서는 타자는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다.
 1) 그렇다면 토착민 타자가 부재하는 현대에 여행가는 과연 무엇을 목격하고 증언해야 하는 것일까? 아마추어 “관광객”(tourist)이 아니라 진지한 “여행가”(traveller)(Carr 79), “거짓 여행자”(faux voyageur)(Jean-Didier Urbain, Frow 69에서 재인용)가 아니라 진정한 탐험가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때 여행기에 재현되는 타자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포스트 모더니즘적 담론에서 타자가 “검손”의 맥락에서 재현된다는 사실도 이러한 질문과 무관하지 않다. 더 이상 토착민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타자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유럽인들은 진짜 타자가 아니라 발명된 타자 앞에서 짐짓 검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아닐까?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에서 사용한 용어를 빌면, 그와 같은 검손은 제3세계 지식인의 “비난의 정치학”(politics of blame)에 대한 자기방어가 아닐까? 아니면 「제국주의적 향수Imperialist Nostalgia」에서 로잘도(Renato Rosaldo)가 지적하였듯이 사라진 문화에 대한 향수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타자의 문제는 타자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주체의 문제이지 않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필자는 서양인들이 동양인 타자에 대해서 쓴 여행기, 그 중에서도 미지의 토착민이 존재했던 19세기 후반과 더 이상 그러한 타자가 존재하지 않는 20세기 중반에 쓰인 여행기를 비교 검토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교의 목적에 적합한 수많은 텍스트들이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자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의 『한국과 그 주변 이웃 나라Korea and Her Neighbours』와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중국 여자Des Chinoises』를 대상 텍스트로 삼았다. 첫째 이유는,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의 제국L'Empire des signes』을

1) 일상이 이국적인 것이 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국적인 것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행은 관광이 되었다고 부어스턴은 「여행자에서 관광객으로From Traveller to Tourist」에서 주장했다. 이때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은 진정한 사건이 아니라 “가짜 사건”(pseudo-event)이 된다(79).

제외하면 이 두 텍스트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여행기이면서 가장 많은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진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두 작가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여성 작가가 쓴 여행기는 남성 작가에 비해 덜 식민주의적이면서, 섬세하고 미세하게 타자의 일상과 표정을 읽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성 텍스트가 대체로 권위주의적이면서 굵은 획으로 정치사회를 그려내는 경향이 있다면 여성 텍스트는 “개인의 경험범위 내”(박용희, 「19세기 유럽인」 144)에서 타자를 세밀 화법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Bassnett 225-227).²⁾ 이러한 이유에서 필자는 비숍과 크리스테바라는 당대의 걸출한 여성 지식인이 어떻게 동양 타자를 경험하였으며 또 어떻게 재현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한다. 두 텍스트 사이에는 1898년과 1974년이라는 약 80년의 역사적 시차가 가로놓여있다. 전자의 텍스트가 영국의 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에 쓰였다면 후자의 텍스트는 그러한 과거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우세하던 탈식민주의의 시기에 쓰였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가 근대적이라면 후자는 탈근대적인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³⁾

비숍여사와 크리스테바의 텍스트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여행기의 역사에 대한 간단한 소묘가 필요하다. 여행기에 재현된 타자의 위상 변화는 유럽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의 역사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유럽이 타자를 그냥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력으로 정복하고 식민화를 꾀했던 19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다. 19세기 이전에 유럽은 비교적 비유럽 타자의 문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

2) 그럼에도 여성적 여행기와 남성적 여행기의 차이가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이면서도 남성적 시선으로 타자를 볼 수 있으며 그 역도 역시 가능하다(박지향 150, n. 10; Bassett 226-229).

3) 그러나 여행기가 집필된 시기가 반드시 그것의 재현적 성격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1909년에서 1914년까지 중국에 체류했던 Victor Segalen의 문학적 여행기는 여러 면에서 탈식민주의적이며 탈근대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논쟁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다(Hsieh 11). 그러나 필자가 살펴보았던 수많은 구한말 유럽인의 여행기에서는 그러한 탈식민주의적 경향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 몽테뉴(Michel de Montaigne)나 루소(Jean Jacques Rousseau)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는 법이나 국가, 문자를 모르는 원주민을 고상한 야만인으로 이상화했다(볼레스텍스 66-86). 그러나 인종의 우열을 진화론적으로 구분하고 전자에게 후자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하였던 제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유럽인은 호텐토트(Hottentot)와 같은 토착민을 미개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박용희, 「아시아의 탈주술화」 150-151; 조현범 42-43; Pratt 43-45). “비소유적 시선”(Greenblatt 26-27)이 소유적 시선으로, “비정복적”(Pratt 69-85) 시선이 정복적 시선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의 변화는 여행기에도 반영되었다. 동양이 먼 신비의 나라에 지나지 않았던 14세기에, 마르코 폴로는 여행기에서 자신이 북경에 체류했다는 현장성을 강조하였다. 19세기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의 여행기는 불가사의한 타자를 직접 가서 보았다는 목격담의 성격이 강했다. 독자들은 유럽인들과 다른 타자의 생김새와 생활 풍속을 경이와 놀라움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그러한 경이의 서사는 인종주의나 골상학, 지리학을 등에 업은 유사과학적 서사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한다. “과학적 여행기의 시대”(Pratt 24)가 도래하는 것이다. 일례로 대원군 부친의 묘의 도굴 범으로 악명이 높았던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Oppert)는 『금단의 나라』(*Forbidden Land*)에서 인종학적으로 조선인 체형의 분석을 시도했다. 이때 여행가의 시선은 과학적 객관성을 자신하는 시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의 시선이 된다. 보는 것(voir)이 곧 아는 것(savoir)이고, 제국주의적 권력(pouvoir)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과학적 여행기의 출현과 더불어서 문학적 여행기도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⁴⁾ 디킨스(Charles Dickens)나 스탕달(Stendhal), 플로베르(Gustave Flaubert)와 같은

4) 이 문학적 여행기는 여행자=작가인 경우를 말한다. 여행이 주제나 배경이 된 상상적 여행기와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디포우(Daniel Defoe)나 필딩(Henry Fielding), 스위프트(Jonathan Swift)에서 볼 수 있듯이 “여행이라는 주제는 . . . 18세기 영문학의 전반에 깔려있었다”(김은령 158).

작가들에게 여행기는 “소설의 대안”(Carr 74)이었다. 이러한 “쓰기 위한 여행”(Hulme 87)은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증하였다. 이러한 소설의 대안으로서 여행기는 충실한 사실의 기록이나 목격담이 아니라 작가의 상상력과 환상이 투영된 창작품, 타자의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는 축에 위치해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문학적 여행기가 여행 담론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지구상에서 파크와 스탠리와 같은 탐험가가 답사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 사라지면서, 다시 말해 더 이상 발견될 타자가 사라지면서, 여행기의 문학과 주관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모더니즘과 여행Modernism and Travel」에서 헬렌 카(Helen Carr)는 1940년에 지구는 이미 명실상부한 “세계화의 시대”(73)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미답의 오지까지 탐사되고 기록되면서 낯선 미지의 타자가 야기하는 강렬한 충격과 놀라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듣거나 보기는커녕 꿈도 꿀 수 없었던” 절대적 타자에 대한 기록으로서 “강렬한 놀라움의 시대”(Greenblatt 132, 14)가 막을 내린 것이다.⁵⁾ 작가의 주관을 강조하는 문학적 여행기의 등장은 그러한 놀라움이 내면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계화 이전에 존재했던 타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상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비숍의 여행기와 크리스테바의 여행기 사이에 있는 80년의 시차가 있다. 이 시차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 이 기간에 탐험으로서 여행기가 문학작품으로서 여행기로 전환되었으며, 일찍이 존재하던 낯선 토착민 타자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이러한 세계의 변이가 주체가 타자를 바라보고 재현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모든 여행기는 주체가 타자와 만나는 “접촉 지점”(Pratt 4)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기록이다. 접촉 지점에서 상이한 문화가 접촉하고 충돌하기도 하며, 지배와 종속의 관계로 접어들기도 한다.

5) 이제 그러한 놀라움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존이나 뉴기니 등으로 “극한 여행”(extreme travel, Hulme 96)을 떠나야 한다.

여행가는 자신과 타자 사이의 차이를 보는 자(seeing man)이다. 이때 타국에 첫 발을 딛은 주체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타자의 인상은 여행기 전체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여행기는 이러한 “도착 장면”(Pratt 78)과 더불어서 전개된다. 필자는 비숍과 크리스테바가 조선과 중국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인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2. 비숍이 발견한 조선인 타자

1832년 영국에서 태어난 이자벨라 비숍은 20살 초반부터 세계의 온갖 오지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여행기를 저술하였다. 그녀가 활동했던 19세기 후반의 영국은 여성에게 사적 공간에 머물면서 ‘집안의 천사’ 역할을 강요하던 시대였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여자들에게 그와 같이 공적 활동이 금지된 가정은 천사의 공간이 아니라 숨 막히는 울타리였다. 프로이트(Sigmund Freud)가 분석했던 세기말적 문명병으로서 노이로제는 그러한 여성의 제한된 역할에서 파생된 후유증이었다. 아무튼 국내에서 신경성 질환을 앓아야 했던 여성에게 비문명세계로의 여행은 훌륭한 치유책이면서 자유를 향한 길이기도 했다. 유년시절부터 두통과 요통을 앓았던 비숍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에게 여행은 곧 치유의 과정이었다(Bassett 234, Cumberland 339). “금단의 나라”로 신비에 잠겨있던 조선을 방문하기 전에 그녀는 이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중동 등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미국에 온 영국여인*The Englishwoman in America*』을 비롯한 베스트셀러의 작가로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당시 62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1894년 겨울과 1897년 봄 사이에 네 차례 한국을 답사했는데,⁽¹¹⁾⁶⁾ 그 경험의 기록이 1897년에 출간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다.

6) 이 글에서 인용되는 비숍의 텍스트는, 이인화 옮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에서 취한 것이다. 원문이 병기되는 경우에만 원문의 쪽수를 표시하는데, 인용 텍스트는 *Korea and Her Neighbours*(Vermont: Charles E. Tuttle Co.: 1986)이다.

서문에서 비숍은 조선이 아직 서양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나라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한다. 『하멜보고서Hendrick Hamel's Journal』나 버실 홀(Basil Hall)의 『10간의 조선항해기Account of a voyage of discovery to the west coast of Corea and the Great Loo-choo island』, 1886년에 영어로 번역된 오페르트(Ernst Oppert)의 『금단의 나라A Forbidden Land』와 같은 여행기는 당시의 영국의 일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⁷⁾ 달레 신부(Père Dallet)의 『한국교회의 역사Histoire de l'Eglise de Korée』외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학계에 알려진 자료가 너무 없다”(17)고 말하면서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부족을 토로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위에 조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던 듯이 보인다.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마저 한국이 적도나 지중해에 있다는 식으로 온갖 잘못된 추측을 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은 전인미답의 “지도 위의 단어”(17)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비숍은 조선이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타자라는 사실에서 자신이 여행기를 써야 할 명분과 정당성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유럽인으로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조선을 보았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하기 때문이다 (MacCannell 136-137). 그녀에게 조선은 “은둔자의 나라,” 유럽 지식의 시선에 드러나지 않은 어둠의 나라이다. 따라서 그녀가 조선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둠을 빛으로 끌어오는 계몽의 시선이 된다. 에덴에서 아담이 사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녀는 아직 기호화되지 않은 조선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기술함으로써 알맞은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이 작업은 조선이 문명인인가 아니면 야만인이나 미개인인가 하는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나 테일러(Edward Taylor)의 문명사적 질문과 펴 수 없

7) 『하멜보고서』는 1670년에 불어, 1672년에 독일어, 1704년에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19세기에도 여러 판본이 있었다(Walraven 59). 비숍의 “‘낯선’ 세계는 사실상 근대 유럽에 더 이상 ‘낯선’ 곳은 아니었”(박용희, 「19세기 유럽인」 122)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문가들에 대해서만 그러했다. 비숍은 일반인에게 조선이 낯선 나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구한말 조선에 대한 여행기에 대해서는 신복룡,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풀빛, 2002, 프레데릭 볼레스텍스,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를 참조하기 바람.

는 관련을 가진다. 물론 그에 대한 답은 물론 쉽게 예상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조선이 영국처럼 개화된 나라라면 그때까지 쇄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서 중세적 어둠에 잠겨 있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방문하는 여행가들이 구태여 여행기를 쓸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폐쇄성은 동양적 타자성의 특징으로 간주되었다(신문수 119). 중국의 끝자락에 있는 조선은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토착민의 나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그녀의 여행기는 “강렬한 놀라움의 시대”의 제보에 속해 있다.

그렇다고 하멜의 표류기처럼 비숍이, 독자의 이국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조선의 풍물을 과장어법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다.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서 비숍은 조선의 지리나 동식물, 자연 환경 등에 대해서 최대한 과학적인 묘사를 시도하고, 가치 판단에 앞서서 중립적인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 서너 쪽에 걸쳐서 국토의 넓이와 위치를 소개하고 동식물들의 이름을 박물학자처럼 꼼꼼하게 열거하며, 조선인의 체형이나 특징을 묘사할 때에는 과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조선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신천지를 처음으로 발견한 탐험가처럼 언제나 강렬한 놀라움이 배어있다. 아래의 인용에서 우리는 그녀는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주거 환경의 야만적 모습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것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이 독자의 감수성에 해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이다.

“서울의 성벽 안쪽을 묘사하는 일은 어쩔지 피하고 싶다. 나는 베이징을 보기 전까지는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아닐까 생각했고, 사오싱의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도시가 아닐까 생각했다. 거대도시이자 수도로서 서울의 위엄을 생각할 때 그 불결함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52).

I shrink from describing intramural Seoul. I thought it the foulest city

on earth till I saw Peking, and its smells the most odious, till I encountered those of Shaoshing. For a great city and a capital its meanness is indescribable. (36)

비숍은 서울의 불결함과 더러움에 속수무책인 듯이 보인다. 그녀가 서울과 만나는 접점은 악취와 오물냄새가 진동하는 야만적 공간에 다름 아니다. 그녀는 문명화된 영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위생적 환경에 충격을 받는다. 당시 “청결과 매너, 세련됨”(박지향 148)을 기준으로 야만성과 문명의 여부가 판가름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충격의 강도를 최상급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라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경에 도착한 순간에 그러한 판단은 바뀌기 시작한다. 이제 북경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도시의 불결함의 실상이 아니라 서울이건 북경이건 낯선 타자와의 최초의 만남이 그녀에게 “반사신경적인 충격”(Greenblatt 20)을 가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에 그녀는 이 충격에 망연자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때 그녀의 반응은 과장이 아니라 혐오의 자연스러운 발로이었을 수도 있다.⁸⁾ 그럼에도 이 충격의 서술은 당시 놀라움에 대한 독자의 기대와 수요를 계산한 재현적 전략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 놀라움의 충격을 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토착민 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한 충격의 재현적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조선 사람들과 대면하는 장면이다. 사람에 대한 그녀의 반응도 서울에 대한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처음에 충격과 놀라움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흉한

8) 당시 여성 여행자들이 청결의 문제에 민감하였다. 그런데 비숍은 청결을 각별히 중시하던 목사의 딸이었다(Cumberland 353)도 무시할 수 없다. 참고로 언더우드 여사(Lillias Underwood)도 『상투의 나라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Life in Korea』에서 조선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김종갑 12).

옷”을 입고 있는 조선 여성은 “땅딸하고 펑퍼짐”한 정도를 넘어서, 아예 사람다운 “모습을 결여하고 있는 듯이”(19)(their figureless figures, 3)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충격은 비숍이 최상급의 “감정적 언어”(Pratt 77)를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 여성은 처음에는 형체가 없는 형체로서 그로테스크하게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그 형체가 여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하는 듯이 보인다. 이 점에서 아래의 구절은 전범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선상에서 바라본 조선 사람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그 길 옆을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바위들 위에 사다새(펠리칸)나
 펑귄을 닮은 하얀 물체들이 얹혀져 있었다. 그 하얀 물체들은 사람
 의 보폭으로 부산 구(舊)시가지와 신(新)시가지 사이를 이리저리 끊
 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 얹혀져 있는 물체들이 한국인
 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34-35)

Seated on the rocks along the shore were white objects resembling
 pelicans or penguins, but as white objects with the gait of men moved
 in endless procession to and fro between old and new Fusan, I assumed
 that the seated objects were of the same species. (20)

여기에서 조선인과 최초의 만남은 사람과의 동등한 만남이 아니라 자연과의 비인격적 만남인 듯이 서술된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한다. 펠리칸이나 펑귄처럼 생긴 물체가 사람처럼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새와 흡사한 “흰 물체”(white objects)이다. 한복을 입은 조선인을 이처럼 자연화시키고 타자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다. 미지의 타자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맹수처럼 언제나 놀람과 충격을 야기하는 것이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Discourse on the Origin of Inequality*』에서 루소는 낯선 타자와 숲 속에서 갑자기 마주친 원시인은 너무나 놀라서 상대방을 “자기보다 훨씬 등치가 크고 힘도 센” 존재로 오인한다고 말하였다(Scott

120에서 재인용). 충격적 만남은 오인을 수반하는 것이다. 비숍의 경우에 그것은 조선인을 ‘형체가 없는 형체’나 펠리칸으로 오인하도록 만든다. 그녀의 시선은 이러한 충격과 오인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도시는 도시같지 않으며, 집은 집 같지 않고, 길은 길 같지 않고, 종교는 종교 같지 않고, 문화는 문화 같지 않다.⁹⁾ 그녀가 영국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타자로서 토착민의 모습, 아직 중세의 잠에서 깨지 못한 원시적 조선이었다.¹⁰⁾

그러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비숍이 조선을 경험하고 재현하는 방식이 그녀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여행기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놀라움의 수사학을 계승한 것이면서 근대적 서사의 연장성에 있다. 무엇보다도 낯선 타자는 낯설고 충격적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유럽의 주체에게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타자는 언제나 놀랍고 낯선 느낌을 주는 것이다. 영국이 정상이라면 조선은 비정상이고, 영국이 중심이라면 조선은 변방이고, 영국이 문명의 정점에 있다면 조선은 아직 중세적 미몽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또 유럽 여성이 자제력이 강하고 자

9) 나중에 조선을 여행하였던 퍼시발 로웰(Percival Lowell)은 조선의 종교는 미신이라고 정의하였으며(김종갑 20), 잭 런던(Jack London)은 조선의 길은 “길도 아니면서 길의 흥내를 내는 짝통길”(42)이라고 폄하하였다.

10) 처음에 조선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비숍의 시선이 나중에는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똑같은 길을 두 번째 여행에서 나는 회상하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한국 겨울의 청신한 분위기에 의해 비할 데 없이 환상적으로 변한 풍경에서 빛나는 아름다움과 매혹을 볼 수 있었다”(47)라는 대목을 증거로 제시한다(신문수, 왕한석, 그리고 이인화의 「역자후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오독이다. 이 대목에서 비숍은 조선을 자연화하는 레토리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도시나 문화, 생활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눈이 서울을 완전히 하얗게 덮어버려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조선을 눈의 지우개로 지우고나서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르는 것이다. 이 대목에 바로 뒤이어서 서울의 “쓰레기와 오물이 그런 아름다움을 반감시킨다”(47)고 말하기 구절이 그것을 증명한다. 조선인의 뛰어난 외모와 지성을 칭찬하는 대목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녀는 영국과 조선을 동등한 상대가 아니라 피후견인으로, 박노자 논문의 제목 「착한 천성의 아이와 같은 저들」이나 볼레스텍스의 저서의 제목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처럼 아이로 취급하고 있다.

율적인 주체라면 제3세계의 여자는 철저한 결여이다(Yu 6).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럽적 주체가 타자와 첫 대면하면서 생기는 낯선 감정(나는 모른다)은 곧 지식(나는 알고 있다)에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낯선 충격이 수그러들면서 조선은 미개한 나라로 자리매김되는 것이다. 이때 조선(B)은 영국(A)과 다른 타자가 아니라 아직 덜 영국화된 타자, 즉 마이너스 영국(-A)으로서 소타자이다.¹¹⁾ 주체와 타자의 만남이어야 할 관계는 주체와 주체의 관계, 주체의 자의식, 주체의 자기 확인이 되는 것이다. 즉 유럽적 주체는 조선에서 유럽 문명의 부재를 발견하고는 고국의 우수성을 새삼 확인하는 것이다. 그가 자신이 보는 것의 정체를 아는 지식의 주체라면 조선 타자는 자신이 문명화되지 못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무지한 주체이다. 조선인들은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불결한 도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3. 크리스테바가 발명한 중국인 타자

그러나 『중국 여자』에서 크리스테바는 그와 같은 유럽적 주체의 특권을 포기한다. 그러면서 주체와 타자의 위계적 질서가 전복되고, 유럽적 주체는 계몽된 주체가 아니라 무지한 주체로 바뀌기 시작한다. 타자를 보고 아는 능동적 주체가 타자에게 보이는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¹²⁾ 크리스테바가 중국을 방문한 것이 1974년이었던다는 사실은 우리의 논의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 1974년은 프랑스의 지식인과 학생들이 자본주의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꺾기했던 68혁명이 실패하고 6년이 지난 시점이다. 혁명의 실패로 좌절해 있던 급진적 지식인들은 서구문명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¹³⁾

11) 대문자 타자와 소문자 타자의 구분에 대해서는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78-83을 참조하기 바람. 주체와 타자의 관계가 A와 B가 아니라 A와 -A라는 것에 대해서는 Certeau, *The Writing of History* (218-226).

12) 물론 오리엔탈리즘의 재현 문법에 따르면 보는 능동성은 서양, 보이는 수동성은 동양의 뒤편이다(Said 308).

그 중에서도 특히 진보적 아방가르드 잡지였던 텔켈(*Tel Quel*) 그룹 지식인들의 중국 방문은 유명한 사건이었다. 이 방문의 경험이 계기가 되어 롤랑 바르트는 『그런데 중국 *Alors la Chine*』을, 크리스테바는 『중국 여자』를 각각 1975년과 1974년에 출간하였다. 이것은 크리스테바와 바르트가 중국을 유럽문명에 대한 유토피아적 대안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가공할 잔인성이 여지없이 폭로되었던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및 68혁명의 실패가 유럽인이 가졌던 근대성에 대한 낙관적 신념을 비판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비숍이 근대 유럽 문명의 전도사를 자처했던 크리스테바는 그러한 문명에 절망한 저항적 지식인이었다.

비숍과 달리 처음부터 크리스테바는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으로 낯선 중국을 보았다는 놀람의 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20세기 중후반의 중국은 수많은 유럽인의 방문으로 인해서 폐쇄성과 타자성이 지워지고 지식화된 중국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중국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무지에서 오는 “당혹감”(bouleversement)(5)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행기의 서사에도 반영되어 있다. “글이 미완성”(Cet écrit à désirer)이며 “책이 아닌 메모”(Ces notes ne sont pas un livre)이고 “결론이 없는”(laissés en suspens)(5)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탄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접 거기 있었음의 현장성을 부각시켰던 비숍과 달리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부재를 고백해야 한다. 서두의 소재목 「누가 말하는가 *Qui parle?*」가 가리키듯이, 심지어 그녀는 보고 말하는 주체가 자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자신이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 있다는, 일견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지적한다(13). 중국에서의 현장성 대신에 글쓰기의 문제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글은 잘 써지지 않는

13)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에서 Eric Cohen은 이러한 여행을, 의미를 향한 “실존주의적” 여행으로 분류하였다. “의미의 추구는 혁명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를 변혁하려는 시도가 될 수도, 아니면 여행을 통해 타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덜 과격한 방법이 있다”(11).

다. 중국 여인을 대면했던 “장면에 사로잡혀 있기”(13) 때문이다.

조선에 대한 비숍의 첫인상이 펠리컨이나 팽귄이었다면 크리스테바가 중국에서 느낀 압도적인 인상은 중국 여자이다. 당시 그녀는 시안 근처의 농가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녀는 땡별을 받으며 땅바닥에 앉아있는 농민의 무리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말없이,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기심도 없이 태연한 눈, 그러나 약간의 호뭇함과 기쁨이 섞인 눈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공동체에 자신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지혜로운 눈길이었다. . . 그들은 우리를 악의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괴상망칙한 동물처럼 바라보았다. . . 만약 우리가 여성들의 조건과 차이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을 놓친 셈이다. 중국을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중국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시안 광장의 침묵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사지가 마비되고, 비위가 상하고, 노여워지며, 그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elle nous attend sans mot, sans mouvement. Des yeux calmes, même pas curieux, mais légèrement amusés ou anxieux, en tout cas perçants, et sûrs d'appartenir à une communauté avec laquelle nous n'aurons jamais rien à voir. . . Comme s'ils découvraient des animaux bizarres et drôles, inoffensifs mais insensés. . . Si l'on n'est pas sensible aux femmes, à leur condition, à leur différence, on rate la Chine. Ce n'est même pas la peine de s'y intéresser: on saura tout d'avance, on n'entendra même pas le silence à la place de Huxian, ou bien, au mieux, si on le remarque, on en restera pétrifié, ennuyé, malade, séparé à jamais d'eux, (13-16)

그녀의 서사는 당혹과 사로잡힘의 와중에서 길을 잃은 듯이 보인다. 그녀는 낯선 중국 타자의 시선에 노출된 채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언어와 지식이 실패하는 지점에 그녀가 서있는 것이다. 여기에 묘사된 그녀의 태도는 무척이나 흥미로워서, 정신분석학적·문화적 차원에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은, 비숍과 정반대를 치닫는 응시와 타자의 성격이다.

대부분의 여행기는 응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된다. 구한말에 조선을 방문했던 유럽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며, 끊임없이 불평했던 것도 자기들을 응시하는 조선인 타자의 호기심이었다. 조선인을 대상화하는 유럽 주체가 반대로 대상으로 보인다는 사실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비숍은 조선인의 지나친 호기심에 재물이 되어 살이 꼬집히기도 하고 숙소의 창호지가 찢기고 방문이 넘어지는 수모까지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비숍은 크리스테바처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예의를 모르는 원주민의 동물적 호기심이라 생각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크리스테바를 응시하는 중국 여성의 시선은 그녀 존재의 뿌리까지 쥐어흔들고, 나아가 그녀를 탈주체화시킨다. 그것은 태연자약한 시선, 무엇보다도 자족적인 시선이며, 공동체의 기반 위에서 결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은 단단한 시선이다. 크리스테바가 그러한 시선에 당황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유럽적 기준으로 판단 가능한 상대적 타자가 아니라 상형문자처럼 독해가 불가능한 절대적 타자로서 상상하기 때문이다(Lowe 136-40). 그 불가능한 타자의 꿰뚫어보는(perçants) 시선에 그녀는 그만 관통당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핀에 찢려서 벽에 꼬인 곤충처럼 그녀는 사지가 마비되는 고통을 느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한 고통이 한때 중국의 식민화를 꾀했던 유럽의 자기반성적 시선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의 중국은 절대적 타자로서 기존의 중국에 관한 모든 담론과 지식을 폐기하는 중국이 된다.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차이,” 그것도 비교가 가능한 상대적 차이가 아니라 절대적 차이이다. 이 차이는 유럽과 중국의 차이이면서 동시에 타자에 대한 지식과 실체로서 타자 사이의 차이이다. 그녀는 독자들이 이 차이를 간과할지 모른다는 조바심에서 그것을 개념화가 불가능한 차이로서 “단애”와 “침묵”으로 재명명하기도 한

다. 비숍에게서 주체(A)와 타자(B)의 관계가 A와 -A의 관계였다면 크리스테바의 타자는 A와 통약이 불가능한 B이다. 따라서 그녀는 모순형용법을 빌어서 가까스로 이 타자의 묘사를 시도할 수 있을 따름이다. 침묵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때 침묵은 말이 있음에도 말하지 않는(sans mot) 침묵이 아니라 말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기호화가 불가능한 침묵이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sans mouvement)과 같은 차원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의 소리를 듣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일까? 물론 불가능하다. 이해의 부재는 한편으로 상상에 자리를 내어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크리스테바에게 중요한 것은 침묵의 “의미”가 아니다. 침묵이 유럽적 주체에게 충격을 가함으로써 유럽을 탈중심화하는 탈주체화의 “효과”이다. 그녀는 중국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탈주체화되기 위해서 중국에 온 것이다.

4. 결론

비숍의 여행기는 아직도 답사되지 않은 미지의 땅이 있고 또 낯선 토착민이 존재하던 19세기 후반의 것이다. 이때 여행기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계몽적 역할을 한다. 비숍은 유럽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조선의 미몽을 깨우치고 근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선은 유럽이 밟았던 문명화의 길을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토착민 타자는 유럽적 질서로 편입됨으로써 유럽의 모방품, 유럽적 소주체가 되어야 했다. 콘래드(Joseph Conrad) 소설의 제목처럼 타자성은 사라져야 하는 “어둠의 핵심”(heart of darkness)이었다. 그러나 지도에서 타자가 사라지는 순간에 부재하는 타자는 상상되고 발명되기 시작한다. 크리스테바의 중국 여자는 그와 같이 타자가 발명되는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다. 근대적 유럽에 식상한 주체에게 그것은 문명으로 “요리”되기 이전의 “날 것”으로서 원시적 타자, “전오디푸스 단계의 모계중심적”(Lowe 137) 타자이다. 타자의 이름을 빌어서 유럽적 문명병의 탈출구가 모색되는 것이다.¹⁴⁾ 이

지점에서 타자의 위상은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의 디즈니랜드와 겹치게 된다. 디즈니랜드가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었던 서부가 이상화된 테마파크라면 크리스테바의 중국여자는 현실보다 더한 현실로서 과잉실재, “과잉 타자성”(Conley 25)이 된다. 절대적 타자는 상대적 타자의 없음의 알리바이인 것이다.

타자 부재의 알리바이로서 문학적 여행기의 출현은 탈식민주의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동양학이 “지역연구”로 재명명되고(윌러스턴 35-36), 유럽중심적 근대화이론이 다중적 근대화이론으로 전환되는 이데올로기적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비숍이 담론적으로 식민화시켰던 동양을 크리스테바가 타자성의 이름으로 탈식민화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지형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때 타자성은 유럽의 자기 확신과 지식의 체계를 전복하는,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파상적 상상력”(김홍중), 혹은 『숭고 강의』(*Lessons on the Analytic of the Sublime*)에서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가 규정한 “숭고”로서 기능한다. “지식을 무화”(unlearn)하고 “탈식민화”(Pratt 2)해야 하는 것이다. 동양을 바라보는 비숍의 응시가 크리스테바에게서는 중국에 의해서 보이는 역응시(counter-gaze)로 바뀌는 이유이다. 그녀의 중국 여자는 자기를 응시하는 유럽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유럽이 문명화되었는지 아닌지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때 중국 여자는 자족적이고 무사태평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영화시중의 미소이다. 그녀의 침묵은 서양중심주의를 내파하는 힘으로써 천둥보다 커다란 침묵인 것이다.

14) 『국가적 우울에 저항해서』(*Contre la dépression nationale*)에서 크리스테바는 프랑스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녀에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어나 이민자와 같은 타자이다. 그녀의 또 다른 저서 『우리들에게 이방인들』(*Étrangers à nous-mêmes*)도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Sam Haigh, “Migration and Melancholia”를 참조하기 바람(233-234).

그럼에도 비숍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테바의 서사도 오인의 구조에 입각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전자가 조선을 축소시킴으로써 반사적으로 자기를 확대시켰다면 후자는 중국을 확대시킴으로써 자기를 한없이 축소시켜 놓았다. 오만과 겸손, 서로 정반대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은 똑같이 오인의 특징, 혹은 평가절하와 이상화의 제국주의의 야누스적 수사학(Spurr 76-91, 125-140)을 공유하고 있다. 동양을 가로지르는 시선은 “시각적 환상”(optical illusion) (Todorov 20)인 것이다. 크리스테바에게 이 시각적 환상은 절대적 타자를 과잉으로 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과잉 타자가 순진한 문화적 상상이 아님을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과잉 실재로서 타자의 귀환은 스피박(Gayatri Spivak)의 표현을 빌면 포스트모더니즘적·탈식민주의적 유럽의 담론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문화주의적 알리바이”(초우 20에서 재인용)이다. 이미 오래 전에 파농(Franz Fanon)은, 문명에 창백해진 백인들이 새로운 피를 수혈 받기 위해 흑인의 타자성을 제물로 요구한다는 통찰을 내놓았다(129).¹⁵⁾ 스피박의 유명한 논문 「서벌턴은 말을 할 수 있는가? Can the Subaltern Speak?」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서벌턴은 구조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서벌턴의 담론적 결여는 서양 지식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담론적 과잉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탈식민주의적 변증법이다. 예컨대 비숍의 여행기에서 조선 타자는 구조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서벌턴의 자리에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테바는 말없는 중국 여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침묵을 모계사회, 혹은 “여성중심사회”(La mère au centre) (49-71)로 번역해낼 수 있는 특권의 소유자가 된다. 탈식민주의적 변증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서양과 동양의 위계적 관계가 전복이 되는 것이다. 일찍

15) 이러한 모티브는 버로스(William Burroughs)나 긴즈버그(Allen Ginsberg), 케루악(Jack Kerouac) 등의 비트세대 작품의 주된 특징이다. 가령 『길 위에서 On the Road』에서 케루악이 인디언을 바라보는 장면이 단적인 예이다. 또 테일러(Charles Taylor)가 『세속시대 A Secular Age』에서 주장하였듯이 전근대적이며 주술적인 타자성에 대한 열망이 현대에서는 대체종교나 대체의학으로 표현이 된다(505-535).

이 제국주의의 시대에 가해자였던 서양이 이제는 피해자의 자격으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레이 초우가 진단했듯이 “백인의 죄라는 담론”을 생산하기 위해 “서벌턴이 신성화”되는 것이다(26). 이 점에서 비숍의 소박한 오인보다는 크리스테바의 오인이 더욱 더 교묘하게 이데올로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의 오인이 교정이 가능한 “실수”(mistake)라면 후자의 오인은 원칙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오류”(error), 전자의 의식의 실수라면 후자는 무의식의 오류이다.¹⁶⁾ 전자의 실수가 잘못 “발견”한 것이라면 후자의 오류는 잘못 “발명”한 것이다. 허구로서 문학 담론이 그러하듯이 상상된 타자는 현실의 타자와 대질시킴으로써 진위의 판명이 불가능한 공간에 있다.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에서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우리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무엇“으로” 보는 “...로서 구조”(as structure)에서 경험한다고 하였다(189-192). 오인은 경험의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경험의 본질인 것이다. 그럼에도 타자가 오인(재현)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자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비숍의 오인에는 적어도 당시의 조선의 일상과 현실, 혹은 소문자 타자가 담겨있다. 아무튼 그녀가 조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소문자 타자를 절대적 타자로 “오인”하는 크리스테바의 담론에는 그러한 일상의 현실이 소거되어 있다. 그녀는 바라보는 것은 중국이라기보다는 서양의 한계이며, 중국의 있음이 아니라 서양의 부정적 있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적과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인디언에 대한 「식민종에 대하여」를 준비하던 몽테뉴가 지식인이 아니라 무지한 선원의 보고를 더욱 신뢰하였다는

16)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용어를 빌면 비숍의 여행기가 역사적이라면 크리스테바는 민족학적이다. “역사는 의식적 표현과 관련된 자료의 체계화라면, 민족학은 사회생활의 무의식적 조건에 대한 자료의 체계화이다”(210). 그리고 잘못과 오류의 구별은 드 만(Paul de Man)의 오독을 두가지로 분류한 것으로, Stanley Corngold, “Error in Paul de Man,” *Critical Inquiry* 8/3 (1982): 489-507, 그리고 김종갑, 『드 만과 해체비평의 한계: 드만의 오류와 잘못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69-72쪽을 참고하기 바람.

사실을 상기해볼 수 있다(226). 지식인들은 순박하게 보았던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법이 없다. 거기에 상상력의 옷을 입히고 해석과 주석을 달아서 이야기를 좀 더 그럴싸하고 고상하게 만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가 이완되어버린다. 이때 타자는 발견된 대상이라기보다는 발명된 대상에 가까워진다. 반면에 단순하고 무지한 선원들은 상상을 가미하거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거울에 비친 대상처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다. 발명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직접 본 것만을 증언하는 것이다.

- 김은령, 「여행기에 나타난 “문화번역”: 스태드만의 『수리남 탐험기』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51/4, 한국중앙영어문학회, 2009.
- 김종갑, 「초월적 기표로서 “조용한 아침”: 퍼시발 로웰의 『조선: 조용한 아침의 나라』」, 『19세기 영어권 문학』 14/1, 19세기 영어문학회, 2010.
- 김현미, 「식민권력과 섹슈얼리티: 19세기 서구 여성의 여행기에 나타난 담론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9/1,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2003.
- 김홍중, 「파상력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 레이 초우,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이산, 2005.
- 박용희, 「19세기 유럽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다섯 여행기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107, 동양사학회, 2009.
- _____, 「아시아의 탈주술화 - 18세기 후반 계몽주의 지식인에 의한 아시아 인식」. 『서양사연구』 28, 서양사연구회, 2001.
- 박지향,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영국연구』 4, 영국사학회, 2000.
- 신문수, 「동방의 타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한국문화』 46/7,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9.
- 앤소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1997.
- 왕한석, 「개항기 서양인이 본 한국문화」, 『비교문화연구』 4,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8.
- 이광린, 「비숍 여사의 여행기」, 『진단학보』 71-72, 진단학회, 1991.
- 이매뉴얼 윌러스틴, 강문구 역, 『자유주의 이후』, 당대; 2000.
-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 조현범, 『문명과 야만』, 책세상, 2002.
- 지그문트 바우만,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2005.
- 테리 이글턴, 김지선 역, 『반대자의 초상』, 이매진, 2010.
- 프레데릭 볼레스텍스, 김정연 역, 『착한 미개인 동양의 현자』, 청년사, 2001.

- Walraven, Boudewijin, 「내키지 않은 여행자들: 핸드릭 하멜과 그의 동료들의 관찰에 대한 해석의 변화」, 『대동문화연구』 56, 성균관대유교문화연구소, 2006.
-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and Helen Tiffin. *Key Concepts in Post-Colonial Studies*. London: Routledge, 1998.
- Bassnett, Susan. "Travel writing and gend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Eds. Hulme, Peter and Tim Young,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Bishop, Isabella Bird. *Korea and Her Neighbours*. Vermont: Charles E. Tuttle Co., 1986.
- Boorstin, Daniel. "From Traveller to Tourist",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61.
- Carr, Helen. "Modernism and Travel: 1880-1940",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Hulme, Peter and Tim Young. Eds.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Certeau, Michel de. *The Writing of History*. Tr. Tom Conley. New York: Columbia UP, 1988.
- Cohen, Eric.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 *Tourism: Critical Concepts in the Social Science*. Vol II. Ed. Stephen Williams. London: Routledge, 2004.
- Conley, Verena. "Kristeva's China." *Diacritics*. winter, 1975.
- Cumberland, Debra. 「Isabella Bird and the Art of the Travel Memoir」, 『인문학지』 33, 2006.
- Derrida, Jacques. *De la Grammatologie*. Paris: Minuit, 1967.
- _____, "Force of Law: 'The Mystical Foundation of Authority.'" *Deconstruction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Eds. Drucilla Cornell and Michael Rosenfeld. New York: Routledge, 1992.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Tr. Charles Markmann. New York: Grove P, 1987.
- Frow, John. *Time and Commodity Culture*. Oxford: Clarendon P, 1997.
- Greenblatt, Stephen. *Marvelous Possession: The Wonder of the New World*. Chicago: U of Chicago P, 1991.
- Haigh, Sam. "Migration and Melancholia: From Kristeva's 'Dépression nationale' to Pineau's 'Maladie de l'exil.'" *French Studies* 40/2.
- Hall, Stuart and Bram Gieben. Eds. *Formation of Modernity*. London: Open U, 1992.
- Hall, Stuart. "The West and the Rest: Discourse and Power." *Formation of Modernity*. Eds. Hall, Stuart and Bram Gieben, London: Open U, 1992.
- Heidegger, Martin. *Being and Time*, Tr.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Harper & Row, 1962.
- Hsieh, Yvonne. *Victor Segalen's Literary Encounter With China*. Toronto: U of Toronto P, 1988.
- Hulme, Peter. "Travelling to Write: 1940-2000",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Eds. Peter Hulme and Tim Young.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Hulme, Peter and Tim Young. Eds. *The Cambridge Companion to Travel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P, 2002.
- Jack London. *Russo-Japanese War Correspondence. Jack London Reports: War Correspondence, Sports Articles. And Miscellaneous Writings*. Eds. King Hendricks and Irving Shepard.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 Kristeva, Julia. *Des Chinoises*. Paris: Editions des femmes, 1974.
- MacCannell, Dean.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California: U of California P, 1999.
- Pratt, Mary.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London: Routledge, 1992.

- Rosaldo, Renato. "Imperialist Nostalgia", *Culture & Truth: The Remaking of Social Analysis*. Boston: Beacon P, 1989.
- Scott, John. Ed. *Jean-Jacques Rousseau: Critical Assessment of Leading Political Philosophers*. London: Routledge, 2006.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Scanlan, Thomas. *Colonial Writing and the New World 1583-1671: Allegories of Desire*. Cambridge: Cambridge UP, 2006.
- Spurr, David. *The Rhetoric of Empire: Colonial Discourse in Journalism, Travel Writing and Imperial Administration*. Durham: Duke UP, 1993.
- Todorov, Tzvetan. *The Fear of Barbarians: Beyond the Clash of Civilizations*. Tr. Andrew Brow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 Taylor, Charles. *A Secular Age*, Cambridge: Belknap, 2007.
- Yu, Su-jin. "Reconstructing Western Female Subjectivity: Between Orientalism and Feminism in Julia Kristeva's *About Chinese Women*", *A Journal of Postcolonial Studies* 7/1, 2002.
-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London: A Triad Grafton Book, 1977.

〈ABSTRACT〉

Discovered and Invented Status of the Aboriginal
Other in the Travel Writings of Isabella Bird Bishop
and Julia Kristeva

Jonggab Kim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concerns the discursive function of the aboriginal other in the travel narrative. The aboriginal people are defined as indigenous inhabitants of places discovered by European explorers. The existence of aboriginal and primitive others completely unknown to Europeans gave rise to a vogue of travel writings. Mungo Park's and Henry Stanley's travel writings, for example, excited and then satisfied European curiosity about the other. Not only that, the knowledge that these others were not civilized gave them a sense of self-confidence and assurance as civilized people. But the age of discovery came to an end in the early 20th century, for every nook and cranny of non-Western realm was thoroughly investigated and documented and the life of the inhabitants was already well-known to the West. It followed the absence of the absolute other, the existence of which was the *raison d'être* of travel writing. Along with such a changed status of the other the character and nature of travel writing began to undergo a transformation. Their narrative became more literary and less documentary, and as a result the other is now invented rather than discovered. Here the question is: "What is the ideological

function of the invented aboriginal other in this age of post-colonialism or postmodernism?”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I compare two travel writings in terms of their rhetorical strategy in representing the other: one is Isabella Bird Bishop’s *Korea and Her Neighbours*, and the other, Julia Kristeva’s *Des Chinoises*, written in 1898 and 1974 respectively. The thesis I argue that Kristeva’s other is a hyperreal other, absolute other in excess, since magnified and exaggerated by her guilty conscience as a European intellectual. But her invention of the absolute other is far from innocent. Behind such a gesture lies an ideological strategy of discursive justification. Now she can represent the voice of the other in the name of its absolute otherness, which remained silent until her arrival.

Key words : other, otherness, aboriginal people, travel writing, representation, modern, pre-modern, postcolonialism, mis-recognition, Europe, China, Korea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4.5 / 게재확정일 : 4.10
